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나섰다

음식물쓰레기 2%, 1일 10t 감량 목표...3월부터 수수료 인상

RFID 종량제 확대 및 감량기 설치·수수료현실화 등 추진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5년 537t/일, 2016년 526t/일, 2017년 501t/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2018년에는 509t/일로 다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RFID 종량제 확대와 학교로 찾아가는 감량교육 및 홍보 등으로 공동주택에서 지난 2018년 음식물쓰레기는 2015년 대비 13% 감량을 했음에도 단독주

택과 음식점, 급식소 등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시행했던 감량사업을 포함해 2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전년대비 2%, 1일 10t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배출량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225대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배출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감량기 13대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해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7년 동안 동결돼 온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오는 3월1일부터 인상한다.

그동안 5개 자치구는 시민 가계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동결해 왔지만, 이로 인해 주민이 부담하는 주민부담률은 약 26%까지 낮아지고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해 자치구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전국 특·광역시 평균 주민부담률은 36%이고, 환경부에서는 배출

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인상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광주시는 낮은 주민부담률을 지속해왔다.

수수료 인상 시기는 오는 3월1일부터 인상금액은 ▲단독주택용은 리터당 46원에서 70원 ▲업소는 리터당 70원에서 110원 ▲공동주택은 kg당 63원에서 95원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공동주택 세대당 월 평균 수수료는 약 12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폭은 약 600원 정도 수준으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급식소 등의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유도를 위해 시민, 학생 등 대상별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2017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져갈 수 있는 소포백을 제작·배부하는 한편 소형·복합찬기 모델을 개발·보급해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또 외식업중앙회, 조리사협회 등과 연계해 음식점 및 급식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량 필요성, 감량 실천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언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선의 방법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생활속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 청·중장년 대상 창업지원 설명회

광주 동구가 지난 19일 서남동 창업지원센터에서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에 따른 창업지원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예비창업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부스 운영, 김정학 동구창업지원센터 센터장의 ‘체계적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예비창업자 신청대상은 1월 31일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체(개인·법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중장년이다. 청년은 만39세 이하, 중장년은 만4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구 “신림교육프로그램, 지금 신청하세요”

광주 서구가 3월부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신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구는 지난 17, 19일 ‘신림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 6일까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숲체험 프로그램은 학교숲, 공원, 산책로 등 운영에 적합한 장소에 초·중·고등학생, 소외계층, 서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은 금당산·팔각산·유적근린공원유아숲체험원 3개소와 백마산생태습지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유아 6세, 7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남구, 좌식→입식 테이블 설치·지원한다

광주 남구는 좌식 테이블 이용이 익숙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 및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식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24일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남구는 서류 심사 후 현지 조사를 통해 총 13~15곳의 음식점에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영업장 면적이 30~200㎡ 이내 규모를 갖춘 업소 가운데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2조(의자 8석) 이상 교체할 희망하는 업소이다.

북구, 여성 위생용품 무료지급기 운영

광주 북구는 일상생활 중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여성화장실 5곳에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 무료지급기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여성 위생용품 무료지급기는 긴급 상황 시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건강권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된다.

북구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공공화장실 내에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아파트 등, 주차장 공유하면 시설 개선

광주 광산구가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해 ‘2020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참가 시설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광산구의 사업은 유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

최소 5면율, 1일 7시간과 1주 35시간을 초과해서, 2천 이상 개방하는 곳에, 광산구는 최대 1억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다음달 2일부터 말일까지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 교통지도과에 방문·제출하면 접수된다.

임형택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21세기 병원 격려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오전 광산구 21세기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로 치료를 재개한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을 격려했다.

광주 코로나 확진자 급증...국가지정 음압병상 확보 ‘비상’

기독·보훈병원 활용 방침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7명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에

음압 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격리 병상(1인실 기준)’은 전남대병원 7개, 조선대병원 5개 등 12개다.

이중 코로나19 확진자 7명과 코로나19 의심증세로 검사를 받고 있는 3명이 음압병상을 사용하면서 조선대병원은 5개가 모두 찾고, 전

남대병원은 2개만 남아있다.

광주시는 확진환자가 추가되면 광주기독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의 음압병상을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에서 국가 지정 격리 병상 외에 음압시설을 갖춘 곳은 광주기독병원과 광주보훈병원 등 7곳에

19개실이 있다.

시는 또 빛고을전남대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환자들을 전원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민간 병원에도 음압시설을 갖춘 병원이 있다”며 “빛고을전남대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환자들을 민간 등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Korea Trade Union Feder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빈부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015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